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2>



자살 충동 이겨낸 비구니

참 멋진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크린에서 그녀의 연기를 볼 때마다 '참 소...

하지만 시하 비구니는 자살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깨달음에 이르렀고...

목을 매기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누구나 불완전 존재라는 걸 알았다더라면...

저는 육정으로 괴로워하고 지금까지 계속 들떠 있어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번뇌에 사로잡혀...

보거나 생각하지 못한 까닭에 멋있다고 착각하고서 '그런데 왜 이런 거지?', '왜 내 뜻대로 되...



한창 공부할때의 당당함이 풍겨나는 대선 스님은 "출고 배고픈 상태여서 오히려 도가 잘 일어나는데 요즘은 모든 면에서 너무 풍족해서...

순간 순간 재발심하라



지상 백고좌

대선 스님

(완주 요덕사 주지)

대선 스님과 수인사를 끝내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들고자 한다"며 찾아온 뜻을 밝히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 스님은 일제 때 <화엄경> 80권을 통달한 화엄의 입안자였습니다. <화엄경>에 뭔가 있는 듯하지만...

요즘은 뭐든지 풍족해 근기 낮아져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죽비' 그리워

계 경책 받는 것이기에 신명나고 환희심까지 일었던 것이죠. 사자가 밀밭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나오는 기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을 왕, 국민화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국사봉 원국사. 강원도 황성의 국사봉 제상바위 등턱에 위치한 원국사는 지혜의 길, 선법의 길, 믿음의 길로 모든 생명을 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뜻조청. 약도라지조청.

수행건강학과. 대구·부산지역 학생모집 안내. 1. 모집기간: 수시모집 (지역 교육장소에서 접수) 2. 교육과목...

아니는데 요즘은 너무 풍족해요. 그러나 근기도 낮아져서 한 첩 나고도 도인이 나오지 않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즉비 기상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일곱 살에 천자문을 뎌 대선 스님은 어려서부터 ‘더이상 배울 것 없는 천재’로 유명했다. 중학교 때 <금강경>을 읽고 깨침을 감각하다 도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19세에 계룡산 감사로 출가했다. <전수경>을 단 하루에 외워 주위를 놀라게 한 스님은 계룡산 북사자암에 토굴을 짓고 3년 6개월간 생식하며 정진하던 중 출연히 계승을 올렸다.

“교배없는 소를 물다 / 깊은 꿈 깨어보니 / 소간데 없고 / 소 입자 이 아니네 / 무변대공(無邊大空)에 달빛 가득 비었구나.”

“그때는 불도 안 때고 출입을 주식으로 생식하며 공부했어요. 불·보살이 나타나다 해도 주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공부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소 밥값 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쇠뿔도 단갑에 뺏듯이 밀어붙일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요. 3천백 정진도 단숨에 해보세요. 생각을 깊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요즘은 근기가 낮아지고 있어요.”

“공부가 잘 되면 마장도 많았는데 어떤 마장이 크던가요?”

“한창 때니 정력이 솟구쳐요. 찰다 보니 더 뻥쳐요. 다행히 공부에 힘이 붙으면서 잡잡해 지더군요. 그렇지만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니었어요. 내면에 잠재돼 있어 어느 순간 불이 불으면 단번에 불어 버리는 거예요. 색(色) 경계가 무섭긴 무서워요.”

지금은 선에 대한 이론 홍수시대입니다. 한 방향이 맞아야 할 때죠. 내가 젊어서 잘못된 수좌 노릇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은 <전등록>에 저중한 어느 노스님의 방 청문을 열고 ‘까옥 까옥’ 까마귀 울음소리를 냈어요. 옛 조사 어록에 때달려 자기 소리를 하지 않은 것을 빗대어 까마귀 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었죠. 죽은 소리는 소용없습니다. 자기와 계합하는 소리를 해야합니다.

1600년을 이어온 조사선은 가장 쉽고 가장 힘있고 직통으로 가는 공부입니다. 곱만큼에 걸쳐 스님의 ‘참선공’과 ‘초발심 자경문’만 넣고 중노릇하면 공부 제대로 됩니다.”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한쪽의 달마도를 보는 듯 하다. 붉은 빛으로 속그어놓은 듯한 눈썹과 입술. 얼굴에서 풍기는 광채에 ‘넉푸른 남자’를 실감한다. 공부자 한창일때의 거칠 것 없던 당당함도 은근히 풍겨난다.

이쯤에서 재가자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 자못 궁금하다.

“공부는 인간성 회복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요.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합니다. 아이들을 무섭게 생각해야 해요. 애들은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알고 있어야. 인간성 회복의 근본은 경로사상입니다. 노인들을 잘 받들어야 해



인간성 회복의 근본은 경로사상이라는 대선 스님.

## 이 시대에 풀어야 할 화두는 환경 산 허무는 것은 내몸 도려내는 것

들도 공부자 익어가는 이들이 많아요.”

“더불어 살아야 할 이 시대에 함께 풀어야 할 화두가 있다면 무엇인지” 문자 스님은 단호하게 ‘환경’ 이란다.

“80년대에 환경정화를 해도 늦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연과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을 헐어내는 것은 내 몸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몇 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벌써 오염으로 인해 생명체가 병들고 지구가 죽어가고. 시내에 서서 주위를 보세요. 병원과 약방이 즐비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참선 공부를 하면 거울을 보듯 훤히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생활속에서 먹을 거리만 잘 조절해도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찰에서 행하는 발우공양 정신을 배워 음식을 쓰레기기를 만들지 않으니 나와 이웃, 자연이 살아남습니다. 특히 산중사찰에서는 조식 조식해야 합니다. 산 아래로 맑은물을 내려 보내야해요. 이것이 공부고 정진이고 기도입니다.”

“스님, 앞으로 말하지 않는 진언이나 들려주세요?”

“아직 공부자 시원찮아서 움막하나 지어 다시 정진할까 합니다. 그때 한마디 해 드리리다”

글=이준영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p><b>대선 스님은</b> 1958년, 열아홉의 나이로 계룡산 감사에서 만공 스님의 제자 해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계룡산 북사자암에서 일대사 인연을 풀고자 생사를 곁고 3년6개월간 생식하며 정진했다. 그뒤 도봉산 광월사에서 10년간 근세 무에도 인으로 일관하는 춘성 스님을 시봉했다. 해인사 성철 스님 회상에서도 교박 10년간 정진했고 금요, 향곡 스님 등 근세 큰 스님을 두루 찾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화두일념으로 정진에 매진했다.</p>	<p>20여년전부터, 생가에 토굴을 짓고 속가의 모친을 모시며 두문불출해 왔다. 대선 스님의 철저한 계율과 율곡은 정진은 주</p>	<p>래 흥련암 청풍선원으로 시작된 수행처는 산내에 요덕사 정진원, 오도암 등 선방만 세 곳으로 늘었다. 스님은 “근래들어 물질중요와 약해진 근기도 도인이 나오지 않는다”며 “한편 들어가면 10여년간 나오지 않고 생각을 결판짓는 수행처를 두어 개 세워 한국산불교의 맥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	---	---

**춘성·성철·금요·향곡 스님 모시고 20여년 정진 “생사 결판지을 수행처 만들어 맥 이어야”**

위에 알려져 종교를 초월해 공부인이 즐기고 있다. 20여년 이어온 용맹정진대월 1, 3주 토요 일을 거쳐간 재가 수행자만 500여명, 수행산아



## 지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허주 스님

허주(虛舟), 빈 배. 빈 배에는 아무도 없고 잠은 고기 한 마리 실려 있지도 않다. 빈 배에 그러나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허주 스님의 무언(無言)의 그림자다. 빈 배는 그냥 가만히 떠 있지는 않는다. 출렁거리는 물결 속으로, 흔들리면서 늘 춤추듯 떠다니고 있다. 만사(萬事)를, 그 만사의 여러 가지 모든 사물을 태우고 빈 배는 오늘도 떠다니고 있다. 내가 지금 어찌 감히 허주 스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랴. 그는 지극한 하나의 목석(木石)같은 존재로 나의 뇌리에 인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문병성

허주 스님은 구 취 장신의 거구다. 그가 가부좌를 틀고 선방 가운데 딱 बैठ고 앉을라치면, 드넓은 선방이 팍 차 버리는 느낌이 들 정도다.

스님은 것처럼 거구이면서도 하루 두 끼 이상은 먹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소식(小食)으로,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

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발만 꾸덕꾸덕 먹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스님의 신조요 신념이다. 그저 육신이 견딜만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굶하지 않고 버티어 나가는 것이 그의 정신이다.

빈 배, 허주 스님을 향한 어떤 황송같은 그리움으로 하여 나는 지금 이 글을 조금씩 적어내려가고 있다. 그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 시 같은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주곤 하였다.

“식달타는 나무터에 이르렀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식달타는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랫동안 서 있었다. 강을 건너야 저 건너편 언덕에 이르는데, 저기

피안(彼岸)에 이르는데... 식달타는 생각에 잠겼다. 번뇌와 망상을 벗어 내야만 강을 건널 수 있다. 번뇌와 망상은 피리를 들고 늘어져 놓아주지 않는다. 녹슬은 사슬처럼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 고뇌의 흔적을, 식달타는 저물어가는 노을 속에 그렇게 무연히 서 있었다.

저물어가는 강가의 노을 속에서 식달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 있었다. 저 언덕, 피안에 이르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 길이 있다고 알고 있을 뿐, 그 길이 어디에 있고, 그 길을 향한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문은 열려 있지 않고 잠겨져 있다. 잠겨져 있는 문을 여는 길,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묘법(妙法)이다. 식달타는 목이 말라 강물을 두 손으로 떠서 자꾸 자꾸 입 속에 넣는다. 강물은 달고, 어머니의 젖과 같다. 무한한 그리움이, 알 수 없는 사투림이 식달타의 전신을 휩싸고 돈다.

집은 황혼 속, 저 건너편 언덕밭이어서 머리 흰 노인인 조그만 목선을 타고 노를 저어 식달타를

## 적게 먹고 큰정신 지키다 물이랑 속으로 떠난 ‘빈배’

향해 다가온다. 노인은 식달타를 향해 이렇게 묻는다.

“그대는 강물을 마시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데... 그대가 강물에게 해 준 게 무엇이 있는가?” 식달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냥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두고, 두 사람은 움직일 줄 몰랐다. 식달타는 어린 부처님이었고, 노인은 당태하생(堂來下生) 미륵불이었다...”

허주 스님, 빈 배. 그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웃었다. 가만히 스님은 미소지었다. 남해 보리암의 한 철 안개는 끝났다.

허주 스님, 빈 배. 그는 빈 배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다. 그의 자취는 아무데도 남아 있지 않았다.

빈 배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망망하게 펼쳐진 남빛 바다. 그 물이랑 속으로 허주 스님은 떠나 버렸다. 내게 알지 못할 많은 의문만을 남겨둔 채 허주 스님은 훌쩍 떠나가 버렸다.

남해 바다. 은빛 노을처럼 반짝이는 물이랑 속으로 스님은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갑신년 동안계 해제가 지난 오늘, 나는 새삼 허주 스님의 행방을 떠올리며 깊고 그윽한 감회에 젖는다. 그도 어딘가의 선원에서 결제를 맞고 해제를 맞고...

그러했을 것이므로. ■봉화 청행사 주지

# 달라이라마 일본법문 및 사찰순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일본 가나자와, 음악당에서 2일간 법문을 하십니다. 이번 일본 법문은 인도에서만 친견하던 존자님을 일본에서 받고 법문을 듣고, 또한 벚꽃이 만발한 교토,오사카 등 사찰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좌석 관계로 3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출발일 : 4월 15일 ~ 19일(4박 5일) ● 여행경비 : 110만원
- 장 소 : 일본 가나자와 석천현립음악당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울빌딩 9층 조계사방

제 1일 4/15(금)	인천 고마초 가나자와	JL 994	12:25 14:05	인천국제공항 출발 고마초공항 도착, 가나자와 시내 이동 후 일본 3대명원 권로쿠엔 관광 후 호텔 투숙 및 휴식(대용장)
제 2일 4/16(토)	가나자와	전용버스		오전 : 모험사, 일본전통다원 히가시자와 관광 오후 :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온천욕)
제 3일 4/17(일)	가나자와 야마나카	전용버스		전일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식행사 참석 후 야마나카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온천욕)
제 4일 4/18(월)	야마나카 교 토	전용버스		야마나카 출발 벚꽃이 만발한 교토 도착 후 금각사, 청수사, 흥분원사등 순례 후 호텔 투숙
제 5일 4/19(화)	교 토 오사카 인천	JL 963	15:10 16:55	오사카로 이동, 사천왕사 순례 및 오사카 성, 신사이바시, 도통보리 등 시내 관광 후 킨사키 공항으로 이동 오사카 출발 인천공항 도착

#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입체형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 6개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안전지용 초, 방생, 탈출이 행사용
- ▶ 청사조형 및 조형 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형),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철, 범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창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